

능력 복음 (로마서 1:8-17)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16절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능력복음이라는 단어로 말씀을 보겠다. 복음안에 능력이 있다는 뜻이다.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왜냐면 거기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는 뜻이다.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 안에만 있다. 다른 데에서는 복음의 능력이 없다. 그 안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능력을 누리는 것이다.

지난 주에는 우리가 한나에 대한 기록을 봤다. 어려운 중에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받았다. 그리고 그것이 평생의 답이 되어 시대적인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그 시대의 최고의 축복을 받은 어머니가 되었다. 들어온 말씀이 답이 되어서 아들 임신도 안했는데 모든 걱정 다 사라졌다. 진짜 마음에 답이 되었다는 말이고, 이것은 응답을 미리 받았다는 뜻이다.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정복해버렸다는 뜻이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다. 성경에 많은 예가 있다. 우리 중에도 이런 것을 체험한 사람이 많이 있다.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받아야 한다. 지금 예배를 통하여 받는 중요한 것이 많이 있다. 기도, 헌금, 찬양 다 중요하다. 그러나 말씀을 받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 우리가 받는 말씀은 창조할 때 하신 창조의 말씀과 동급이다. 하는 일의 종류만 다른 뿐이다. 그때는 창조를 하셨고, 지금은 문을 여시는 것이다. 그래서 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다. 한나는 그 때 이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전에는 걱정이 많았는데, 마음에 확신이 들어와서 충만해졌다.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었다. 전에는 문제를 두고 늘 기도했는데, 사람이 달라졌다. 말씀이 들어와서 그 날부터 완전 다른 인생이 된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많은 예가 성경에 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 만나고 말씀을 받았다. 그의 인생이 180도 달라져버렸다. 유대인중에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단한 사람들도 나타난다. 17절의 말씀은 루터가 어느날 발견한 언약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였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 받는 그 믿음에 도달한다는 뜻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룬다고 표현했다.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였다. 하박국 2:4절에서 나온 말씀이다. 어느날 이 말씀을 읽다가 눈이 열린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것 아니냐? 행위와 공로로 구원 받는다고 계속 말하고 있던 그 때에, 이 말씀이 들어온 이후에 루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시대적인 일을 한 사람이 되었다. 그 때 이후로 세상의 역사를 뒤집어 버렸다. 이걸 분명 루터가 한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한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메시지이다. 이런 응답을 받으려면 말씀을 받으라는 말이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전부 말씀으로 하시기 때문이다. 기도 응답 어떻게 받나? 기도로 받는 것이 아니다. 말씀으로 받는다. 말씀 없이 기도로 받으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말씀 위에 있고 말씀이 바탕이다. 말씀을 언약이다. 이것을 요약한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그 위에서 기도해야 응답 받는다. 이 바탕이 없는데 기도하면 불신자와 같다. 이것 위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받으면 자연히 기도가 된다. 그러나 이 때는 기도 안해도 응답 된다. 응답은 기도로 받는다. 맞는 말이다. 더 맞는 것은, 말씀으로 받는 것이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년 이때즈음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하였다. 둘다 안 믿었다. 그러나 그대로 되어 졌다. 믿음이 먼저가 아니다. 기도의 행위가 먼저가 아니다. 말씀이 먼저고 약속이 먼저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24기도 하라는 말이다. 말씀을 받고 24응답을 받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란다.

1. 능력 복음

16절 다시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왜냐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유대인에게서 복음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는 이방인을 대표하는 것이다. 그 당시는 헬라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사도바울의 요점은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많은 사람을 저주에서 건지는 것을 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복음은 근본문제 세가지에 대하여 각각 답을 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답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다른데에는 답이 없다. 오직 이것 뿐이다. 원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온 근본문제 세가지는 인간은 절대로 해결을 못한다.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왔다. 원죄 이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원죄를 해결하면 되는데, 이것을 누가 해결하느냐는 것이다. 복음은 이 근본문제 한 개 한 개에 대해서 답을 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것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다. 하나님 떠난 문제에 대하여 주님이 답을 주셨다. 내가 길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길이라고. 물 떠난 물고기가 다시 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요 14:6절에 말했다. 죄 문제, 죄 없으면 저주 없다. 그래서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러 왔다고 하셨다. 대표적인 성경구절이 막 10:45이다. 사단 문제, 그래서 내가 뱀의 머리를 깨러 왔다고 하였다.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왔다고 말씀하셨다. 창세기 3:15, 요한복음 3:8절, 이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 말고는 구원 받을 길이 없다 여기서 구원 받는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한번 믿어서 구원 받은 자는 절대 바뀌지 않고 의리를 지키신다. 약속 그대로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고백하고 언약으로 잡는 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응답하신다. 무슨 응답인가? 내가 너의 인생의 길이 되겠다는 것이다. 내가 너의 인생에서 모든 저주를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너에게 역사하는 뱀의 머리를 내가 깨겠다. 누구든지 필요한데, 아무도 할수 없는 것들이다. 그래서 근본 문제를 해결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 복음 누림을, 고백을 지속하면 응답이 계속 쌓이게 되어 있다. 응답이 쌓이면 누구든지 한다. 받아놓은 응답이 있기 때문에. 남은자, 순례자, 정복자의 핵심이 이 복음이다. 그래서 요약하면 믿음이면 자격을 얻는다. 신분이다. 누리면 하나님이 약속한 이것이 나의 삶에 나타난다. 응답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래서 누리면 무조건 응답받는다. 기도하는 시간보다 복음 누리는 것을 먼저해야 한다. 무조건 역사 일어나고 이것이 답이고, 이거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설명이다. 원인이 원죄이다. 원인이 그 원죄 때문에 온 근본문제 세가지이다. 이 원인이 사단이다. 누가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예전에는 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 이유를 모르고 문제만 해결해주라고 한 것이다. 문제를 알고 답을 알면 내가 답을 가지고 싸울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와서 울고 불고가 아니고. 전쟁을 불어라 내가 준 답으로. 이미 다 줬다. 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가 죽었는데, 뭐가 더 필요하냐는 것이다. 그런데 왜 못했냐면 몰랐기 때문이다. 이론도 정리가 안되어서. 그런데 어느날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었다. 진짜 되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에게 말씀을 주신다. 그러면 흑암 세력 필요 없다. 무너진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할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다. 이 사실이 발견되고 더 깊이 언약이 되기 바란다. 그냥 믿고 끝날 일이 아니다. 이것 가지고 흑암 세력 꺾고 정복해야 한다. 그것 때문에 온 모든 저주를 박살 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면 된다고 증인 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이다. 발견이 되면 안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 발견, 깨달음이 관건이다. 어떻게 하면 눈이 열릴수 있을까? 답은 말씀을 받는 것이다. 한나는 그 전까지는 헤맸다. 그냥 아들을 주라고 울었다. 답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헤메고 있는

것이다. 말씀이 들어오는데 그 날부터는 안 울었다. 울 이유가 없다. 답 낫기 때문에. 이 답을 가져야 한다. 말씀이 들어오면 눈이 열린다. 그 외에는 눈이 열리지 않는다. 한나는 기도하다가 말씀 들어와 눈 열렸다. 우리도 이럴수 있다. 누구하고 대화를 했는데 깨달아 졌다면 그게 말씀이다. 그냥 걸어가고 있는데, 또는 운전하는데 생각이 들어왔다. 말씀이다. 이때 눈 열리고 모든 것의 답이 나는 것이다. 한나는 모든 것을 깨닫고 원리를 알고 발견하고 나니 걱정이 사라져 버렸다. 이 눈 열리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받는 이유이다. 그러면 안되는 것이 되어진다. 아들이 안되어서 맨날 울었다. 그런데 되어진다. 말씀 들어오면 하나님 역사한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간다. 한나는 이거 모를때에는 하나님 안 따라가고 자꾸만 아들 이야기만 했다. 그런데 이게 들어와서 아들 던져버리고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구나. 이해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이 소통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신다.

우리는 어떤지 생각해봐야 한다. 과정이 있으니 서로간에 비난 할 일은 아니다. 나도 그랬다. 여기에 눈이 열리기 전에는 나도 마찬가지였다. 그 전에도 그냥 메시지 할 때, 복음 복음 복음, 이 때는 복음이라도 말하니 다행이었고, 복음 모를때에는 성경성경성경했다. 성경 안에 복음이 있지 성경이 복음이 아니다. 여기에 눈이 열리면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다. 말과 기도, 잡은 언약이 달라진다. 인생이 당연히 달라진다. 이것이 답이고 유일한 답이다. 왜냐면 이유가 사단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복음 언약 잡아야 한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복음 고백으로 누리야 한다. 그러면서 이 근본 언약으로 구체적 인도 받기 위해 말씀을 받는 것이다. 반드시 승리하고 정복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 2. 언약의 사람

사람은 누구나 언약으로 살아야 한다. 원죄를 해결하고 사단을 죽이지 않고는 인생의 답이 없기 때문이다. 불신자의 방법으로는 기본 밖에 못한다. 하나님과 통하는 인생은 이 기본 방법으로는 절대 안된다. 우리는 불신자처럼 육신적으로만 살다가 죽을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필요한 육신적인 것도 주겠다는 것이다. 한나가 영적인 사람이 되니까 모든 응답이 왔다. 성경은 이 부분을 많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 렘넌트 7명 전부 영적인 일을 했다. 그런데 육신적 문제 때문에 문제 된 것은 한번도 없었다. 오히려 육신적 문제를 모두 정복했다. 요셉, 노예였지만 육신문제 정복했다. 이런 예가 한두개이겠는가? 그래서 완전 증인되었다. 무엇에 대한? 예수님은 그리스도. 말씀 받으면 끝이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증인. 이것이 답이다. 틀림 없다. 절대 안되는 일이 없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살고 영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이다. 하나님께는 절대 변하지 않는 소원이 있다. 언약으로 사는 것. 이것을 위해 온 세상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것도 모르고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멸시한다. 이 사람들에게 주는 유명한 말씀이 시편 14:1 절에 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도다. 세상적으로 주로 똑똑한 인간이 이런 말을 한다. 하나님이 한마디로 정리했다.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있는데 없다고 하니까.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사 회복을 쥐고 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어리석은 것이다. 하나님은 단 1초만에 지구를 반쪽 낼수도 있다. 그러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순간적으로 다 죽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도 구원할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소리를 하는 인간도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사람 중에서도 구원 받은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절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우리의 눈이 여기에 맞춰져야 한다. 나도 상당기간 안되었다. 그런데 만일 지금 안 맞춰져 있다면 그것은 영적 문제이다. 사단에게 당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뱀의 머리를 깰 답이 있다. 기도 제목으로 잡아라. 하나님 나는 내 눈이 어디로 돌아다닙니까? 뭔가 다른 곳으로 가 있는 우리의 눈이 돌아오면 많은 것을 보고 누리게 된다. 이게 진짜였는데,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았는가. 시대적인 인생을 살고 간 성경 인물들은 전부 이 마음이 하나님과 통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완전 기적으로 만드셨다. 그리고 사단의 모든 역사는 전부 이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셨다. 사단이 일으키는 그 어떤 일도 이 사람들의 인생을 막지 못했다. 사건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아무도 방해할 못했다. 한나도 그 증인중 한 사람이다. 사도바울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다. 우리 중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일어났다. 죽을 때까지 이 역사가 계속 될 것이다. 놀랍다. 그리스도 언약 잡는 것이다. 복음. 그리고 내 눈이 하나님의 소원에 맞춰지는 것이다. 그 언약의 사람. 그렇게 사는 것이다. 사단이 반드시 내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문제가 뭔가? 하나님, 이 눈이 열리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 이번주일에는 그 말씀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것 되어서면 한나처럼 답 나기 때문에 1번 기도제목이다. 월요일부터 계속 기도해라. 언젠가는 되는거다. 안되는 일은 없다. 그런데 왜 안하냐? 이게 문제이다. 영적 문제이다. 축복이 있기 바란다. 기도가 되어지는 축복. 그러면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정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시대 최고로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만일 미국에 이 복음의 문을 열면 시대적인 일이다. 남미에는 많지만 미국에는 아무도 못했다. 그러면 우리는 못할것인가? 생각을 해보고 개인적으로 결정하라.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다. 우리도 한나처럼 되면 하는 것이다. 루터처럼 어느날 성경을 읽다가 말씀이 들어와서 역사를 뒤집는 것이다. 미국에 영적 역사 복음 역사를 뒤집어 버리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우리가 받은 복음이 시대적이기 때문이다. 이 기도 하고 평생을 여기에 드리는 것이다. 나머지 응답은 따라오는 것이다. 이 말씀이 진짜 되듯이 내것이 되어야 하는데 왜 안되는가? 안되면 되겠는가? 자꾸 복음 안에서 떠내려 가는 것이다. 나도 많이 떠내려 갔었다. 어느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셨다. 그 어느날을 우리 모두 받자는 것이다. 그러면 모든게 달라진다. 아주 중요한 예가 한나이다. 사도 바울, 더 기적적이다. 루터도 마찬가지이다. 세계의 역사를 뒤집어 버렸다. 이 시대적인 복음을 우리가 받았다. 답은 그리스도이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이것이 답이다. 그러면 발견되면 완전 다른 인생 다른 사람이 된다. 우선 영적 깨달음의 세계가 달라진다. 당연히 기도 응답 달라진다. 믿음과 영적 상태가 전과 달라진다. 그리고 이 모든 영적인 비난은 삶의 현장에 그대로 나타난다. 왜냐면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당연히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다. 전도가 아무런 부담이 없어진다. 오히려 하나님이 힘을 주시라고 기도하게 된다. 그리 할 정도로 전도의 문이 계속 열리는 것이다. 되어서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있다. 이 필요한 것을 다섯가지로 요약했다. 그게 오력이다. 영적이 힘이 필요합니다. 내가 성경을 비롯해 세상에 대해서도 바르게 알아야겠습니다. 체력도 있어야 하고 경제도 있어야 하고 제자도 있어야 하니 인력도 주세요.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게 언약의 사람이다. 이것이 언약의 사람의 인생이다. 그러면 자동으로 순례의 길이 나타난다. 그 길을 하나님의 인도로 가고 있으면 결과가 온다. 그게 정복의 역사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놀라서 사는 것 하나님의 뜻 아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러면 복음을 누리고 잡고 살아야 한다. 그것으로 모든 문제에 도전을 해야 한다. 다시 한번 말씀 받고 창조의 기적을 누리는 주간이 되기를 바란다.